



9월 FOMC 여진 지속: 거침없는 미국채 금리 상승세

그림1. 9월 FOMC 후폭풍으로 흔들리는 미국 국채시장과 주식시장



그림2. 국채 금리 속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상 확률은 낮아지고 있음

9월 25일 기준	4.75~5.00%	5.00~5.25%	5.25~5.50%	5.50~5.75%	5.75~6.00%
11월	-	-	81.6%	18.4%	-
12월	-	-	60.8%	34.5%	4.7%
24년 1월	-	-	58.3%	35.6%	5.9%
3월	-	11.1%	54.0%	29.9%	4.8%
5월	3.8%	26.0%	45.6%	21.2%	3.3%

그림3. 9월 FOMC 회의 이후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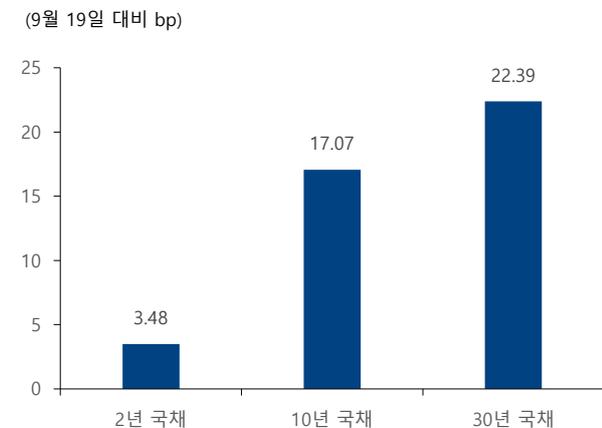


그림4. 연방 정부 섯다운 리스크 등으로 미국 CDS 도 불안한 추이를 유지 중



자료: CME,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9월 FOMC 후폭풍 지속

- 미국 10년 국채 금리, 16년만에 4.5%대 진입
 - 25일 증가 기준 4.529%로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9월 FOMC 회의 이후 금리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은 다소 우려스러운 현상임
 - 빅스텝과 같았던 9월 금리 동결의 후폭풍이 국채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더해줌.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내년에도 연방기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굴스비 총재는 지난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연준 관료들이 내년에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을 시사했다고 "밝힘
 - 9월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지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 연준내 시각은 한층 강화된 분위기임
- 유가와 미 연방정부 일시 섰다운 가능성도 국채 금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90달러에 등락을 거듭 중인 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섰다운(업무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도 국채 금리 상승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중임
 - 지난 부채한도 협상에서 보여주었던 미국내 정치갈등이 또 다시 연방정부 섰다운 리스크를 높이면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무디스가 미국 연방정부의 섰다운은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난 8월초 피치사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또 다시 미국 신용등급 리스크가 제기됨.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 CDS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유지중임

■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추가 금리인상 리스크보다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를 반영중임

- 국채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상보다 동결 유지 전망이 아직 주류
 -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추가 금리인상보다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아직 높게 판단 중임. 이를 반영하듯 CME Fed Watch에 따르면 11월과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각각 81.6%와 60.9%임
 - 9월 FOMC 회의 당시 대비 장기 금리인 10년과 30년 국채 금리는 각각 17bp, 22bp 급등했지만 미 연준 금리정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2년 국채 금리는 3bp 상승에 그침
 - 결국 현재 국채 시장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보다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와 연방정부 섰다운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 등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국채 금리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는 미국 경기사이클에 부담을 줄 공산이 높음
 - 미국 경기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 현상은 소비심리 및 주택경기는 물론 각종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공산이 높음. 특히, 파업, 섰다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고유가 현상 등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가 동시에 엄습하고 있다는 점은 고금리를 이겨내고 있는 미국 경제라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
 - 당사는 미 연준의 긍정적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중반까지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L(엘) 자형' 경기 사이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